춘천 성시신문

The Chun Cheon Holy City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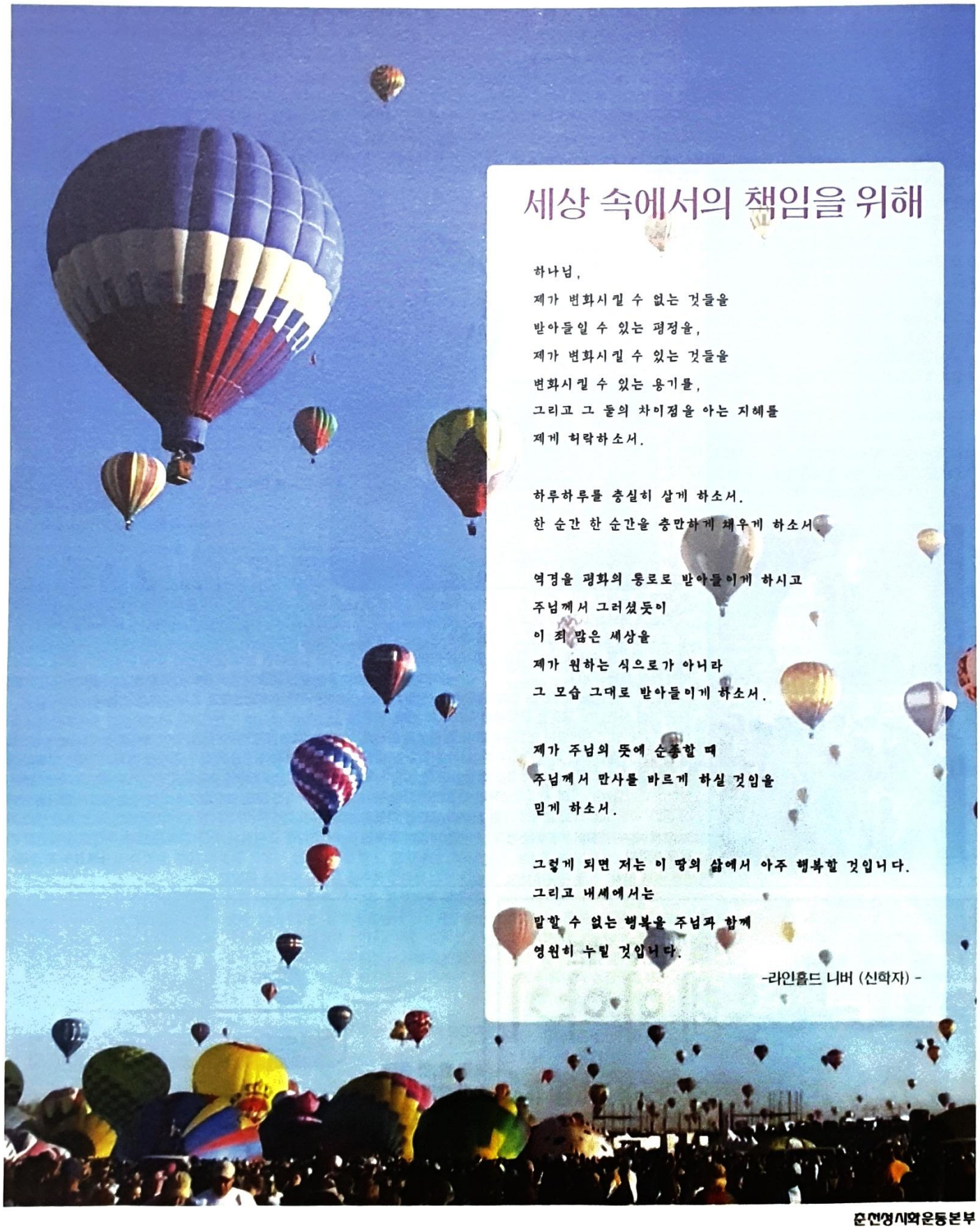
성 시 비 전
교회갱신 · 부흥 · 복음화운동
교회연합일치운동
새로운 도시 모범시민운동
세계복음화 기도운동

www.holycity.or.kr

발행인 : 이 원 호

2007년 7월 1일
(1998년 9월 15일 창간) 제104호

2. 여름 수련회 어떻게?
3. 영원한 청년 윤대호 JDM 30년을 말한다!
9. 우리 곁에 있는 山 금 병 산
11. 아름다운 만남, 사랑 그리고 결혼



세상 속에서의 책임을 위해

하나님,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의 차이점을 아는 지혜를
제게 허락하소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게 하소서.
한 순간 한 순간을 충만하게 채우게 하소서.

역경을 평화의 통로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이 죄 많은 세상을
제가 원하는 식으로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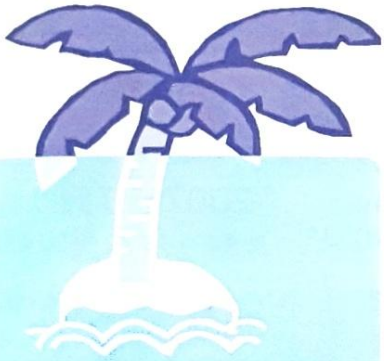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만사를 바르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땅의 삶에서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라인홀드 니버 (신학자) -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여름수련회 어떻게?



여름인가 싶더니 벌써 여름이다. 여름에는 교회의 대표적인 행사인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다. 나는 청년시절 선교단체 수련회를 시작으로 하여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차례로 마치고 나면 여름방학이 다 지나가 아쉬움이 많았다. 하지만 수련회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했던 생생한 은혜가 나를 성장시켰다고 확신한다. 뿐만 아니라 여름수련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응답하여서 지금은 목회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여름수련회는 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이라 하겠다.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변화시켰던 수련회도 시대가 변화되면서 프로그램과 그 내용이 상당한 변화를 거치고 있다. 개인이나 공동체의 신앙성숙의 계기가 되게 했던 수련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거듭하기도 한다. 이러한 실패 때문인지 요즘은 대규모 연합수련회를 제외하고는 개교회 중심의 소규모 수련회는 점점 외면당하고 있다. 그래서 수련회가 실패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대안 책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여름수련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최근 수련회의 추세는 대규모 연합수련회이다. 이는 아마도 교회의 현실이 그것을 반영한다고 본다. 대부분 교회의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줄고 있다. 그래서 몇몇 안 되는 소수를 데리고 수련회를 치르기 보다는 연합수련회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연합수련회의 장점도 많다. 개교회가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 개교회가 초빙할 수 없는 전문 강사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연합수련회에 문제점도 있다. 몇몇 단체의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매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천편일률적으로 과거의 수련회의 형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한정된 전문 강사는 이 수련회 저 수련회에 초빙되어 강의하다 보니, 대부분의 수련회가 득특한 주제나 프로그램을 연출하기가 쉽지 않다. 뿐만 아니다. 최근 수련회가 대형화 되다 보니 수련회에 참석한 개인에 대한 세심한 교육적 지도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집회 중에 소외되는 참여자들이 생기게 되어 공동체 의식 함양은 물론 개인의 신앙성장에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2. 여름수련회의 방향 어떻게 잡아야 할까?

우선, 개교회가 수련회를 준비하든 아니면 연합수련회에 참여시키든 먼저 수련회에 대한 교육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입시중심의 교육현장에서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수련회는 신앙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담당자들이 수련회를 언례적인 행사로 지나치기 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우리 교회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연합수련회에 참석시키더라도 주관하는 단체의 성향이나 프로그램 내용, 그리고 참석하는 인원 등을 고려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수련회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 개교회별로 진행하지 않더라도 앞으로의 수련회에 대한 교육적 목적을 수립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올해는 '구원의 확신과 부르심'이면 다음 해에는 '신앙성숙과 삶',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비전과 선교' 등과 같이 년차별 수련회의 교육 목표를 수립해 놓고 목표에 맞게 수련회를 참여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다.

셋째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에 상관없이 교회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흥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되는 연합수련회나, 전문성과 안전성이 결여된 대형집회는 자제되어야 한다. 적어도 교육 대상의 문화와 세대의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일방적이고 강요하는 식의 시대착오적인 수련회는 그만 두어야 한다. 작은 교회라도 교육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사교육을 통해 준비를 미리미리 해둘 필요가 있다.

3. 여름수련회 시작과 마무리 어떻게 하는가?

수련회 준비 위원회를 통해, 주제 및 목표를 설정하였고 강사와 장소 섭외 및 답사가 마쳐졌으리라 생각된다. 한 달 남짓 남은 기간 동안 좀 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비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좋겠다. 남은 시간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하며 진행할 것인지? 사후대책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홍보 :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수련회의 의미를 강조하고 지난 수련회의 사진을 전시하는 등 흥미와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좋겠다. 현수막도 몇 주 전부터 단계별로 게시하여 관심을 고조시켜 나가며, 주보나 특별회보를 제작해서 핵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준비사항을 알려 수련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보를 준비 실시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동영상을 편집하여 홍보영상을 제작해 보는 것도 좋겠다.

2)교사 및 리더 교육 : 모든 프로그램의 준비를 점검하여 철저하게 준비되게 하며, 전체 프로그램을 숙지하여 진행이 매끄럽게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리더들을 훈련시켜 자발적으로 수련회를 섬기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준비 기도회 : 수련회의 성패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 간섭하시도록 기도하며 준비한다. 특히 기도회를 통해 참여자들은 사모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4)각 분과별 준비모임 : 수련회의 분과별 준비모임을 연쇄적으로 갖는다. 찬양팀, 율동팀, 문서팀, 홍보팀, 시설팀, 상담팀 등 분과별 모임을 통해 함께 만들어 가는 수련회가 되도록 한다.

5)수련회 그 이후 : 수련회가 마치면 학생들에게 설문서를 작성하여 평가하고, 교사들과 준비위원들이 함께 모여 평가회를 갖는 것은 다음 수련회를 위한 좋은 자료가 된다.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열기가 쉽게 식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24~48시간 내에 만나서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삶에 잘 적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좋은 내용들은 예배시간에 간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효과가 있다.

수련회는 시간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청소년 · 청년들에게 신앙지식은 물론 삶의 결단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리고 점점 개인화되고 이기주의화 되어 공동체성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 공동체로서 만남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준비해야겠다. 남은 기간 등안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최영조]

한복 침구 예단
線 혼례이야기
혼례의 새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팔호광장 사거리에서 강원대 후문쪽 120M
HP 016 347 6614 T 033 252 1525

춘천성시합창단
www.club.cyworld.com/ccachoir
(클럽에서 춘천성시합창단을 치세요)
디자인 나래디자인
간판,현수막
십자가네온
현황판,실사
(사진출력)
인쇄
(명함,포스터,팜플렛)
TEL : 033)255-8644
FAX : 033)252-6676
H. P : 010-6383-8228

영원한 청년 윤태호 목사, JDM 30년을 말하다!

참된 제자훈련은 공동체정신을 내면화하는 것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서 만난 그는 여전히 청년(靑年)이었다. 1977년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마 28:19)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예수제자운동 30년의 역사는 영원한 청년 윤태호 대표의 비전과 열정의 산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필요에 끊임없이 응답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그는 세대와 민족을 뛰어넘은 JDM 30년 역사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한다. "이제 다시 새로운 30년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대양을 가로지르고, 도시를 횡단하며, 캠퍼스를 돌파하여 젊은이들의 마음을 점령하고자 합니다. 식지 않는 불굴의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으로 왔던... 길이 아닌 길, 가보지 못한 길을 다시 가려고 합니다." 성경적 삶에 대한 확신, 제자훈련에 대한 비전, 가족공동체에 대한 열정은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신앙적 가치이다. 춘천을 세계적인 선교의 중심도시로 만든 윤 대표와 JDM의 새로운 세기를 향한 비전을 들어보도록 하자.

J·D·M 예수제자운동(JDM)을 섬기고 있는 윤태호 대표 (한국제자훈련원장, 복음주의협의회 선정 10대 청년설교가)와의 인터뷰입니다.

1977년에 시작한 예수제자운동(JDM) 30주년 맞이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 있었던 순간과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염원하는 작은 무리가 모여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한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여기까지 이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가장 기쁜 순간은 젊은이들이 주님을 알고 제자로서 일생을 헌신하는 것을 볼 때이다. 사실 이런 기쁨 때문에 지금까지 헌신할 수 있었다. 가장 슬펐던 순간은 함께 등역하던 최원국, 김미경 간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직면했을 때였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순교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우리 모임은 더욱 견고한 성령의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최근 10년간 개신교인의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선교역사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년선교운동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청년선교운동도 마찬가지이다. 해가 갈수록 전도가 힘들다. 캠퍼스에서 기독청년들의 영향력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대학, 청년부 사역이 활성화 되고 있는 곳은 막강한 자본과 세련된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몇몇 대형교회 뿐이다. 청년선교운동의 현저한 퇴조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포스트모던사회 속에서 절대적 진리를 찾는 젊은이 감소. 둘째,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 부재. 셋째,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한국 기독교인의 이원론적 경향. 넷째, 한국적 상황과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기독교문화의 부재. 마지막으로 청년선교운동이 지나치게 지성주의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대안은 성경적 제자훈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JDM 30주년 기념예배 10월 3일 오전11시 강원대 백령문화관

제자훈련사역을 어떻게 이해하시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보통 제자훈련하면 성경공부나 프로그램사역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제자훈련사역중에 성경공부나 프로그램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분이지 전부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 제자훈련은 공동체의 정신과 철학이 내면화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적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과정이다. 어떤 목회자들은 교회부흥을 위해서는 제자훈련을 위한 성경공부나 전도를 위한 최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생각이 좀 다르다. 10년 동안 목회자로서 늘푸른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한 번도 제자훈련을 위한 성경공부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시도해 본적이 없다. 단지 3가지 사역에 집중적으로 전념했다. **첫째, 선교에 최선을 다했다.** 주일 대예배 시에는 성경강해를 했고,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연관되는 실천적 주제를 다루어 말씀을 나눴다. **둘째, 소그룹 활성화에 힘썼다. 셋째, 1년에 2번 청지기 세미나 성경사경회를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주님을 아는 지식을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기회를 만들고, 그렇게 살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권면해야 한다.



JDM 사역에 있어서 강조하는 공동체의 실천적 목표를 말씀해주세요.

나는 3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성경적 삶을 추구하는 것. 둘째,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헌신하는 것. 셋째,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특히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질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질서를 세워나갈 때 믿음 안에서 영적인 가족공동체가 이루어진다. 가족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온전한 가족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지체들은 공동체내에서 가족애와 더불어 안식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나는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너는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 그러나 공동체 내의 필요에 끊임없이 응답하려고 노력하였다. 우리 공동체에는 가족상담소 기능을 하는 행복충전소가 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정신적, 심리적 케어를 통해 헌신된 제자로 만들어, 성숙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대와 민족을 넘어 새로운 30년을 향한 JDM의 비전은?

현재 JDM은 국내 12개지부와 세계 23개국에 해외 JDM이 설립되어 있다. 78명의 해외선교사가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다. 앞으로의 JDM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다. 어떻게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 영성과 지성을 갖춘 지도력을 개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다음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지도력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엄청난 성장 동력이 제공될 것이다. 현재 JDM의 철학과 사상을 신학적으로 정립하는 사역을 위해 교수요원 3명이 유학 중이다. 앞으로 이들이 차세대 JDM운동의 도약을 위한 견고한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훈련기관을 더욱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기관으로 발전시키려고 한다. 현재 3개의 훈련기관 즉, DTS(디모데훈련-리더양성), DTI(지도자훈련), STS(간사훈련)과 복음주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모임의 지체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과 국내, 해외사역자들을 준비된 지도자가 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향후 2년 내에 효율적인 훈련기관과 성경전문학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선교회로서 전 세계 8000여개의 캠퍼스에 복음을 전해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자"는 사역을 더욱 힘차게 감당하기 위해 필리핀 클락에 국제본부를 세울 예정이다. 이미 필리핀 JDM개발회사(법인)를 창립하여 국제학교, 선교사훈련, 실버타운으로 개발하고 있다.

춘천지역의 기독청년들에게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품는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JDM운동은 초기 7명의 작은 무리가 소그룹 모임으로 시작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으나 만인제자사역에 대한 일념을 품고 기도하면서 변화되었다. 또한 공동체의 필요에 응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기회를 주셨다. 사사기 성경말씀을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나온다. 입다는 매우 불행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 성장하였지만 시대에 필요한 사람으로 준비한 결과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시는 인물이 되었다. 많은 기독청년들이 헌신을 이야기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깝다. 열정, 응답, 준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독 청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신앙의 단어들이다. 또한 영성과 사회성(인격), 언어능력등도 매우 중요하다. 기억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심오하고 원대한 비전을 가진 준비된 사람만을 쓰신다.



[취재 정재호, 사진 김미경]



두 곳의 성경은 나를 새롭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판단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후로는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5:14-15)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일 년을 지내며 사고팔고 하여 이득을 얻으리라, 말하는 너희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 버리는 수증기니라. 너희가 마땅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요,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약4:13-15)

지난 5월호에 이어 구체적인 단기 선교의 준비사항을 말하고자 한다.

모 집

1.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의 목적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단기선교, 선교여행, Vision Trip, Out Reach, 정탐여행인지 알아야 한다.).
2. 같은 부르심이 있는 자들을 모집하라(주제-가는 곳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수록, 내용, 기간을 공고하고 신청서 작성).
3. 준비와 더불어 훈련하며, 기도회를 갖으며, 합숙으로 공등체를 형성하라. 실습(가장 중요하다. 특히 전도를 해 봐야 한다.)으로 목적을 성취케 하라.
4. 기도편지(내용에는 지역에 대한 정보, 가는 등기, 기도제목, 후원계좌)로 기도 및 물질 후원자 확보.

여 행

1. 여권발급(여행사에 맡기지 말고 직접 하라.) 및 비자발급(단체비자 시 여권유효기간이 모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라 까다로운 나라는 입국을 안 받아준다.)
2. 해외여행 보험, 항공수속 여행사의 선정(성시신문에 광고 나가는 여행사를 이용하라.)
3. 준비물(패키지, 별 이동이 없는 선교지면 가방으로, 움직임이 많으면 배낭으로 하되 짐은 될 수 있으면 줄여라. 여권 분실에 조심하고 여권 복사본을 준비하라. 현지 돈을 공항에서 바꾸면 더 수수료가 비싸다. 춘천의 은행에서 하라.)
4. 춘천에서 공항에 가고 오는 시간을 알아 두라. 특히 선교지에서 입국할 때 연착 등등의 이유로 예정된 시간을 넘길 수 있음을 생각하라.
5. 공항에 일찍 도착하여 티켓팅을 하고, 짐 보내고(특히 올 때는 배낭 속에 돈을 넣지 말라 가져 갈 수 있다.) 공항에 마련된 기도실을 이용하거나 공항구경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쇼핑은 삼가야 한다(올 때는 몰라도 갈 때는 마음이 주님께 맞추어야 한다.).
6. 공항(현지 공항도) 및 비행기 안에서는 정숙하라(벌써 선교가 시작된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있다.)
7. 인도자, 리더에게 복종하라. 여행 시에는 특히 자기만 생각지 말고 팀원을 생각해야 한다.

선 교 지

1. 선교지의 음식을 먹고, 선교지의 집에서 잠을 자라. 그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고 있다.
2. 사랑으로 현지인들을 대하며(고전13장의 사랑을 생각하라), 팀원 서로에 대해 체리티(charity, 일반 사랑과 구분되는 크리스토스의 생명에서 나온 사랑으로서 크리스천에게만 있는 생명의 속성)를 품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안다(요13:34,35). 체리티는 또한 팀원을 완전케 하는 접착제(bond)이다(골3:14). 체리티는 가장 탁월한 단기 선교의 빛이다.
3. 기동의 원칙에서 "부대를 이동시켜야 할 때는 직전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라."는 말이 있다. 환경이나 상황 변화에 융통성이 있게 적응해야 한다. 목표와 계획을 아무리 심사숙고하여 수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수정할 민감함이 있어야 한다.
4.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임을 잊지 말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셨다. 그대 대왕(大王)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에, 거지가 두드리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집안 식구가 두드리는 것 같이 할 것이며, 경관을 두려워하는 부랑자처럼 두드리지 말고 그 집의 절친한 친구나 친속처럼 두드릴 것이며, 폐를 끼치는 것처럼 또는 부적당한 시간에 주인을 부르는 것처럼 이색해 하지 말고 충심으로부터의 환영을 받고 진수성찬으로 대접받을 의젓한 손님과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크게 두드리라.(크루메처)

돌아와서

1. 현지로 사랑과 감사의 편지하기.
2. 자기에게 확신을 주는 개인 간증문.
3.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한 교회에 보고서 작성제출.
4. 다음 선교 헌신자를 일으키는 자료정리.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땅끝이라고 안 스페인(서바나)을 가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의 길목에 있는 로마교회와 교제 후 로마교회가 그리로 보내 주기를 원했고, 고후10장 고린도교회엔 그들의 믿음이 진보된 후 지경이 넓혀지기를 소망했다. 우리의 선택은 야베스처럼(대하4:10)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구해야 한다. 이런 바울의 선교 방법은 우리의 비전증후군의 바로잡음과 함께 하나님의 분배사역(선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깨닫게 한다. "기록된바, 그분에 대하여 전해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이해하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5:21)

[편집부 이영규]

2007 한걸음 더하기 일본문화 기행

- 일시 : 2007년 7월 30일(월) ~ 3일(금), 4박5일
- 장소 : 일본 후쿠오카
- 비용 : 성인 45만원, 학생 40만원(보험, 선박, 숙식, 입장료 포함)
- 대상 : 초등 4학년 이상(선착순 30명 내외)

태국 단기선교

- 일시 : 2007년 8월 13일(월) ~ 18일(토)
- 장소 : 태국 쁘라이부족
- 비용 : 80만원 (보험, 숙식, 방콕1일 투어 포함)
- 대상 : 초등 4학년 이상(선착순 30명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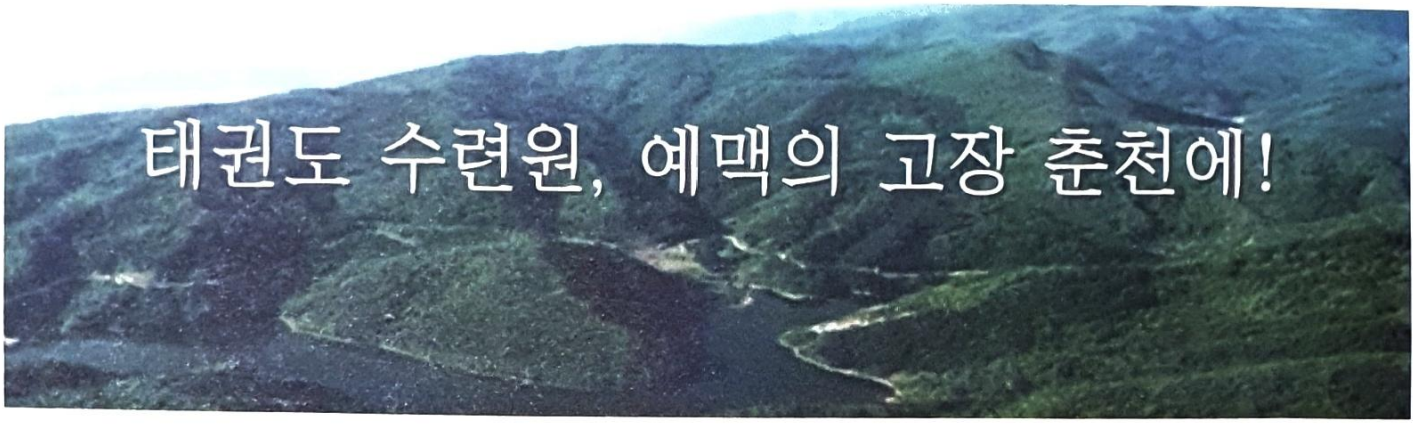
*문의 : 255-8865, 010-3118-8865
*준비물 : 세면도구, 갈아입을 옷, 성경, 필기도구, 개인비상약

하나투어 HANATOUR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주말에 여행 알아보기 힘드셨죠?
여행 매니저와 상담하세요. 언제, 주말 언제나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EL:244-1212 (하나투어)
하나투어 전문판매 대리점 NTOURS 이마트내 1층에 입점해 있습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세경볼링센타
매주 토요일 오후2시~3시30분 무료강습
단 체 환 영


위치 춘천시 석사동 694 세경상가(지하)
대표 이 용 운 집사
(춘천온누리교회)
춘천시볼링협회 전무이사
☎ 261-6184~5 / 011-9969-6702 cafe.daum.net/ccbowling

태권도 수련원, 예맥의 고장 춘천에!



춘천은 맥국의 고도로 민족무예의 전승지

삼국사기와 무예도보통지에 따르면 고조선의 주체세력인 맥족 맥갈족에 의해 세워진 맥국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강하고 용감한 무사정신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맥국이 고구려에 흡수된 후에도 맥국인들의 무사정신은 을지문덕, 연개소문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무사집단 '선배(先輩)'로 이어져 내려왔다. 선배정신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선비'로 맥을 잇고 '선비정신'은 일제시대 춘천의 유인석장군에 의해 의병봉기로 이어지며 우리고유의 민족무예정신으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특히 장절공 신승겸의 임금에 대한 충절, 뭉골에 대항하던 춘천부민의 애국항쟁, 의암 유인석선생의 구국충절, 김유정선생의 애향심은 태권도를 통해 함양되는 애국정신과 충효충절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구국항전의 현장 춘천은 유인석선생의 기념관 건립 등 유적지 성역사업을 끝내 의병정신이 깃든 구국충절의 정신이 태권도 정신으로 이어지는 상무진승을 계승하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의 전통무예 태권도정신의 계승 지는 하나 된 통일한국을 전제로 건국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미래 환경적인 도시개념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 바로 그 중심에 춘천시가 서 있다.

21세기 춘천시가 지향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전원도시, 생명·문화중심도시의 실현은 태권도 정신의 계승 및 수련을 위한 터전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춘천은 세계적인 스포츠로 거듭난 태권도의 종주국으로서 우리나라 위상을 드높인 아름답고 신성한 세계태권도 전당의 최적지다.

지난날 우리 지역 신문에 게고되었던 기사내용 일부를 뒤돌아 다시 한 번 살펴봤다.

역사이래로 강원도는 심신수련의 도장으로서 그 맥을 이어오고 있다. 신라의 지도층을 이뤘던 정치와 군사의 중심지에 서있던 화랑도들도 심신수련을 위한 최적지로 강원도의 명승지를 택하였다. 이후 고려조에 이르러서도 나라와 국가의 중심이 될 모든 지도자들도 의례히 강원도의 산하를 여행하고 무예를 수련하고 인격을 쌓아가며 덕목을 키우는 등 웅지를 틀수 있는 장소로 강원도를 택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선비들이 지도층을 형성하였는데 이들의 정신과 기상이 만들어진 곳은 다름 아닌 강원도였다. 이제 예맥의 고장이며 동시에 통합적인 전 한반도 역사의 모든 정치와 정신적 지도자들의 심신수련의 도장이었던 강원도의 수부도시를 태권도와 선비정신이 어우러지며 한 민족의 5천년 역사를 이어온 백박의 정기를 전 세계인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고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킨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는가?



태권도라는 무에 정신을 담은 한국의 대표 문화를 꽃피우자!

우리의 시대는 문화의 시대이다. 춘천에 춘천다운 문화가 꽃을 피울 때 가장 자연스럽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울 것이다. 춘천은 본래 터전이던 예맥의 숨결이 담겨 있는 곳에 우리 조상들이 펼쳤던 기상과 그들의 정신과 문화 역사를 조심스럽게 연구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세계적인 정신을 창안해 나갈 수 있는 장소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조식선생과 의암선생을 이어 퇴계이황의 성리학이 꽃을 피우던 이 강원도엔 현재 한국인의 자랑거리라 할 수 있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주도하였던 정신운동의 산실이 있다. 즉 새마을 운동은 누구나 공감하는 국민정신 개혁운동이었다. 50불의 한국을 이만불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던 새마을 운동 뒤엔 가나안 운동이 있었고, 그 속엔 이 운동을 꽃 피우게 한 복민 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강원도 신림의 가나안 농군학교[교장 김범일 장로]

고대의 강원도 정신이던 선비정신이 중국과 한국과 심지어 일본까지 퍼져가며 등양의 신사도 정신이 되어 민족정신으로 한국의 자랑스러운 대표적 정신이 되었고, 전 세계 곳곳마다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현시대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한국 민을 처절한 좌절과 절망에서 건져내었던 새마을 운동속의 복민 정신은 정말 대단하였다.



이제 이 고대와 현대를 이어놓은 정신적 유산위에 태권도라는 무에의 정신을 담아 세계인들 앞에 한국의 대표적 문화로 소개할 수 있는 터전이 생긴다면 우리민족의 자존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복된 도시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문화 공동체가 되리라고 전망해 본다. 더욱 갈등과 분쟁의 전 세계인들이 깜짝 놀랄 통일의 정신을 이를 토대로 하여 만들어 가면, 이 시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한 수도 있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상상 속에 관망해 본다.

지금까지 춘천은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번엔 모처럼 서로 갈라지다시피 했던 태권도 기관들이 연합하고 있다고 한다. 그 가운데 춘천에 수련원을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시면 길은 반드시 열리게 될 것이다. 민족의 정신적 변화를 주도해왔던 복음적 정신으로 태권도 수련원이 춘천에 세워지기를... 그래서 세계인들이 와서 정신적 영적 육체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수련원으로 발전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춘천성시본부 사무총장 조영춘 목사]



제 7차 다니엘 여름 독서캠프

주제 :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인재가 되자!!

※강사 : 하 헤 린 선교사, 최 영 조 목사

-사전독서학습, 영성학습, 비전학습, 영화학습, 독서학습, 강의학습-

★일 시 : 2007년 7월 30일(오전9시) ~ 8월 1일(오후9시)

★장 소 : 갈릴리교회 교육관

★참석인원 : 선착순 20명

★문 의 : 256-5922, 244-5925, 011-373-592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탐방 I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남춘천 순복음교회는 지난 1999년에 창립된 교회이다. 남춘천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과 소망이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상처 입은 자 슬픈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섬기는 교회, 전 성도가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교회이다.

이제 탄생한지 겨우 8살의 어린 교회이지만 주 안에서 매우 의미 있게 성장하고 있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보자.

의미 있는 교회탐방순서로 남춘천순복음교회(오의석 목사)편입니다

오의석 목사

오 목사는 전라북도 순창이 고향이다. 칠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큰 형님이신 오대석 목사(현 태백순복음교회 담임)의 인도로 처음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후에 신학공부에 대한 계기도 오대석 목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 목사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세계적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던 조용기 목사로부터 그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상한다. 신학대학을 졸업한 오 목사는 열정을 가지고 새 교회를 개척한다. 오 목사가 서울 광명시의 광명 순복음교회를 개척한 것은 1989년, 20대의 어린 나이였다. 무모하리만치 준비 없이 뛰어든 2년여의 교회개척은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패기만 가지고 시작한 교회개척이 큰 열매 없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소득도 있었다. 교회개척의 기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수하게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들이었고, 참다운 교회에 대한 이상을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그 후 2차 사역지로 부름을 받은 곳은 정선의 예미순복음교회, 폐광촌 목회였다. 예미에서 오 목사는 예수님의 목민(牧民)목회를 배웠다고 말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2년간의 예미순복음교회 사역 후 1994년부터 춘천과의 인연이 시작된다.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 목사)에서 부목사로 5년여를 섬기게 된 것이다. 오 목사는 춘천교회의 김주환 목사께 특별한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한다. 김주환 목사를 통해 인격목회를 배웠고, 춘천성시화의 꿈을 이식받았기 때문이리라.

남춘천순복음교회

1999년 10월, 남춘천순복음교회가 퇴계동79번지에 개척된다.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던 순복음춘천교회가 100일 작정기도를 통해 헌금한 5천만 원과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퇴계타운상가 안에 아름답게 설립된 것이다. 오 목사는 20대의 어린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던 열정이 이때 다시 살아남을 느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목회경험을 살려 수적 부흥의 목표보다는 "회복목회, 치유목회"에 강조점을 두고 목회를 하기로 결심한다. 오 목사는 현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할수록 영성이 깊어져야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목회자를 통해 강단에서 외쳐지지만 성도들은 실생활 속에서 치유 받지 못한 상처와 내면의 깊은 쓴 뿌리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오 목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연세대학교 등에서 인간심리, 심리 상담을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성경공부는 내적치유가 중심주제로 다뤄진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이 성경공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 상한 마음이 치유됨은 물론이고 악한 영에 눌려있던 영의 세계가 열리며 육체적인 치유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꿈과 사명

남춘천순복음교회는 초기부터 국내사역과 해외선교사역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왔다. 일본선교(김도형 선교사), 중국선교(이병연 선교사)를 비롯하여 강원신학교사역과 목회자 독서모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올해의 가장 큰 기도제목은 복음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갖는 일이다. 퇴계쇼핑타운의 현 교회가 협소한 관계로 부지매입을 통해 성전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중심의 내적 치유를 통해서 성도로써 장성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교회, 이를 위해 힘쓰고 있는 오의석 목사와 민정완 사모, 그리고 사랑과 돌봄을 실천하는 교우들이 있기에 남춘천순복음교회는 하나님 앞에 시대적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취재 최상도, 사진 김미경]



제시뉴욕 · 레모네이드
럭셔리한 아름다운 멋

결혼예복 · 숙녀복 전문
패 · 션 · 리 · 더 제 시
모녀가 함께 입는 명품
많은 연예인이 즐겨 입는 명품
제 시 뉴 욕 운 영
대표 전 순 천 집사(순복음춘천교회)
☎ 252-7262
위치 조양동 신한은행강원본부 앞

나누기 원하는 곳
♣ 온라인, 자동이체, 전자금융으로 더 편리하게!!
♣ 대출은 더 편리하고 더 빠르게 낮은 금리로!!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종신보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꼭 준비하세요!!
춘천와이신협
운교본점: 255-1007 (1층신협, 3층기독교연합회, 4층CBS방송)
강남지점: 261-1002 (퇴계 현진에버빌 2차 옆)

| 역사자료

춘천 성시화운동의 태동(略史 3)



조 남 진 장로
(춘천성시본부초대본부장, 순복음춘천교회)

94년도 성시집회

94년에는 춘천기윤실과 기독교학문연구회(기학연)의 공동주최로 김진홍 목사를 초청하여 「복음과 춘천 94 성시집회」가 9월 8~9일 이틀에 걸쳐 열렸다. 첫날은 김진홍 목사(두레마을대표)의 말씀집회로, 둘째 날은 춘천성시화 진로모색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기조연설은 문선제 박사(강원대총장)가, 토론자는 한균 목사(평화교회), 피종호 목사(나눔교회), 장근성 목사(춘천 IVF), 안동규 교수(기윤실춘천대표), 윤태호 목사(예수제자운동), 조남진 장로(성시운동본부장)가 참여했다.

홀리클럽의 탄생

춘천성시화운동은 95년도에 들어서 획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96년도에 이르러 평신도 성시화 운동단체인 '춘천홀리클럽'이 탄생했다. 이는 91년도에 차장검사로 부임하여 춘천성시화운동에 불을 댑였던 전용태 권사가 장로가 되어 춘천지검 검사장으로 춘천에 다시 부임하였다. 곧이어 양인평 장로가 춘천법원장으로, 이범찬 안수집사가 안기부 지부장으로 부임해 왔고 성시운동의 초기멤버였던 조남진 장로가 강원일보 사장으로 취임하는 등 영향력 있는 기관장들이 춘천에 모여들면서 춘천성시화운동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성시화의 활성화와 춘천기독교연합회의 탄생

또한 성시화운동을 활성화하여 춘천을 거룩한 도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 뜻을 가진 분들이 우선 기독교연합회를 만들어 기독교운동체로 세우고, 여기서 춘천성시운동본부를 만들자는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에 성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구로 '춘천기독교연합회(교역자와 평신도지도자 96. 8. 30)'의 탄생을 돕고, 이 기독교연합회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96. 9. 19)'를 출범시켰다. 기독교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평신도지도자가 함께하는 연합체가 있어야 하는데 춘천에는 이런 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단지 부활절연합예배와 8·15광복절예배를 주관하던 '춘천기독교역자연합회'라는 교역자들 간의 친목단체만이 있었을 뿐이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당시 춘천기독교역자연합회장 이원호 목사(소양성결교회)의 결단을 힘입어 만들어진 춘천기독교연합회는 초대회장에 임택창 목사가, 성시운동본부 초대본부장에는 조남진 장로가 취임하였고, 월드비전 강원도지부 건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리하여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운동본부가 연합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96년 춘천성시주간으로 선정, 성시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시운동에 들어갔다.

첫 성시주간 행사는 첫째 날 성시토론회(발제자:민족통일연구원 허문영박사, 토론자:전용태·조남진장로, 김광국목사, 이갑용CCC간사), 둘째, 셋째 날 홍정길 목사 초청 전체집회, 넷째 날 기독교기관장을 비롯한 선교단체교회 헌신자 150여명이 시내 전역을 돌며 총력 전도를, 다섯째 날 전국무총리 이영덕 장로 초청 성시기도회, 여섯째 날 청소년 자녀교육 특강, 일곱째 날 김준곤 목사 초청 총력전도 특강 후 1,500명이 춘천성시화를 다짐하며 총력전도를 펼쳤다.

[다음호에 계속]



| 영혼의 양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윤 병 식 목사 (춘천강남교회)

대학 1학년 초에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로 거듭나니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이 뜨겁게 솟아났습니다. 이후로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QT를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쉼 없는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는 했습니다. 대학 2학년말에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세 가지 원칙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 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생을 사신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최우선순위로 놓고 판단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웃의 유익"입니다. 사도 바울은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성숙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즉 형제를 실족케 하지 않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특히 영혼의 구원을 위해 전도하는 일은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고이며 최상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 나의 시간, 재물, 재능을 아낌없이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이웃의 유익을 위해 잠시 동안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런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억지, 인색, 염려, 후회'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자유, 기쁨, 감사,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저 받은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가운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을 깨닫고 난 이후로부터 모든 생활에 적용하면서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생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고통이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나의 소망과 복이 되게 하시되, 맛보고 체험하며 증거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www.seeds21.co.kr
Microsoft Office Specialist
MOS 공식 시험센터
MOS 직정 교육센터
SCI
씨앗컴퓨터학원
국제공인자격증 MOS 마스터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이력서가 빛나는 MOS MASTER 취득대비과정
★ 엑셀/워드/파워포인트/엑세스 MOS MASTER 수업
★ OA 기초활용에서부터 실무능력까지 체계적으로 능여주는 MOS MASTER!!!
★ MI자격증 소지한 전임강사(마이크로소프트가인정한 자격증)의 기출문제족보!!!
♣교육과정(6월 4일~7월 6일)
1) Master과정
【엑셀 & 워드 (Expert), 파워포인트 & 엑세스(Core)】
:5주과정
2) 일반과정
【엑셀&파워포인트】: 5주과정
☎033) 252-0179 춘천시 후평3동 891-11 (동아특목탕 3층)

※ 교회차량 상담 환영합니다.
현대자동차
호반판매대리점
최 정 용 집사
011-379-1165
(E-mail: cjy1165@yahoo.co.kr)
♡아버지학교와 성시합창단,
그리고 가산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빛 되신 주님께 영광을!!



김춘배 화백
(화목교회 집사,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편



그대의 강가1



부활



주님과의 만남

김춘배 화백은 전통적인 미신과 불교 집안에서 자랐다. 그의 모친은 그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 가출하였다. 모친의 돌봄을 받지 못한 탓에 그는 세 살에 소아마비를 앓고 지체장애가 되었다. 유년기를 조부모 품에서 보낸 그는 어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게 되었다. 어린 시절 그는 한때나마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졌던 아버지가 읽던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적들을 보아오다가 할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니게 된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회병으로 눕자 할머니는 교회에 발길을 끊었고, 그 또한 교회와 멀어졌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미신과 불교를 번갈아 받아들였다.

그러던 중학교 3학년 어느 날 그는 불안한 자신의 미래를 온전히 예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하게 생겼고,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런 그의 마음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날마다 일기장에 적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부 선배의 인도로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된다. 고등부에서 활동하면서 그는 기도의 맛을 보았다. 몸이 불편한 김 화백을 위해 등교할 때마다 늘 책가방을 들어다주던 선배의 고마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를 위해 기도를 드렸다. 후에 그 선배는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좋은 학교로 진학까지 하였다. 분명 김 화백의 기도 응답이었으리라! 그는 선배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며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한때 기독교에 관심을 가졌으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입고 교회에 비판적이던 부친도 후에는 오토바이로 김 화백을 교회에 태워다 주는 등 회복의 기미를 보이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러서 청각장애를 앓았던 누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집안의 믿음이 좋은 매형을 만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한다. 매형은 신실한 음악교사로 재직하다가 현재 교장이 되었으며 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김 화백. 그의 미소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다가온다.

신앙의 동역자

김 화백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크게 영향을 주고받은 선배 세 명이 있다고 한다. 한 분은 목사로서 청교도 신학서적을 출판하고 있고, 또 한 분은 YMCA 사무국을 섬기고 있으며, 나머지 한 분은 영화사를 하는 분이다. 처음 만나 교제할 때 그들은 모두 신앙이 없었으나 선배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김 화백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어 믿음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김 화백의 신앙을 이끌어주며 멘토 역할까지 하고 있단다.

주님은 김 화백이 방탕한 생활을 한다 싶으면 어김없이 다시 말씀으로 강하게 붙드시어 금방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옷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신다. 경제적으로는 늘 궁핍함을 면치 못했으나 이는 그로 하여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절실히 체험케 하시려는 주님의 배려와 은혜였다. 주님은 기도할 때마다 까마귀와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 주셨다.

주님이 주신 소명

예능에 소질이 있었던 부친 덕에 김 화백은 그림을 많이 보면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그는 자연스레 미술계로 몸담게 되었다. 좋은 성적으로 인해 한때 약학과 진학을 꿈꿨으나 친구들의 강한 설득으로 강원대 사범대 미술교육학과에 진학한다. 서양화를 전공한 그는 내심 교사의 꿈을 키웠으나 장애인채용금지로 인해 그 꿈은 무산되었다. 대학시절 많은 독서를 하면서 지적인 방황을 하다가 4학년 때 어느 선배의 도움으로 성경말씀의 깊은 의미와 능력에 영적으로 눈이 뜨이는 체험을 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신학대학원 진학까지 생각 하였으나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선배가 작가로서의 소명을 일깨워주었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입시학원을 운영하였다. 화실에서 성경공부 모임을 갖으며 열심히 후학을 지도했다. 주님은 교사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주셨다. 그러나 운영난으로 15년 만에 입시학원을 접고 작가생활로 전환하게 되었다. 현재는 소수의 수련생을 지도하고있다.

1997년 첫 개인전 때 '빛'을 주제로 한 수채화 작품으로 많은 공감을 받았다. 또한 그는 2002년 기독신춘문예 시 부문에서 가작에 당선되어 큰 상금까지 받았으며 문학계에도 발을 들여놓았다. 그리고 대한민국기독교미술대전에도 다수의 작품을 출품하는 등 각종 기독미술의 기획전에 초대전을 가지기도 했다. 김 화백은 올해 후원자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30일에는 춘천미술관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열 예정이다. 강원기독미술인협회 등에서 활동 중인 김 화백은 이런 교제를 통하여 문화선교를 이루고자 한다.

성시화의 비전

고교시절 함께 했던 후배 이영길 선교사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김 화백을 기독교학문연구회(예수가족) 모임에 인도했다. 당시 모임에 함께 했던 최상도, 정재호 전 도사와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1997년 시작된 성시화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1998년에 창간된 성시신문 편집위원장인 조충환 목사의 권유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8년간 만평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지난 6월호를 끝으로 후배를 양성하자며 스스로 성시만평을 물려주었다.

김 화백은 주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가 바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을 굳게 믿는다. 그는 언제나 작업의 결과가 주님의 기쁨과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비밀과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님을 증거 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감동하며, 참 진리의 길로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지금까지 자신의 활동이 극히 미약하다고 겸손히 고백하는 김춘배 화백. 그는 이제까지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만큼 더욱 성실하고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있다. 특히 문학 활동을 통해 준비된 많은 자료와 풍부한 정서를 총동원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저술활동도 펼치고 영화에 대한 관심도 살려 기독문화선교를 할 전방위적인 비전을 품고 있다. [취재 권기찬, 사진 김미경]

건강한 춘천의 변화와 발전에 최선의 협력을 기울이며
성시 운동 비전에 적극 참여합니다.

※모든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최상의 서비스의 거리

고·객·을·최·고·로·생·각·하·는·상·가
춘천명동상가번영회

1. 불우이웃돕기, 베트남장학사업, 노인경로잔치 등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하고있습니다.
2. 한국문화의 진원지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의 대표 쇼핑 명소로 성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춘천 문화 예술의 중심거리로 가꾸고 만들겠습니다.

TEL : 033)242-0767 춘천명동상가번영회 회장 윤헌영

SSO TOTAL DESIGN
쏘인테리어
교외건축연구소
대표 권 승 갑 장로 (제일장로교회)
033-242-5573 / 018-330-0433
1 OFFICE : 춘천시 퇴계동 891-1 대원B/D 7F
2 OFFICE : 춘천시 효자3동 607-2
STUDIO : 춘천시 서면 당림 1리 81-5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우리 곁에 있는 山 - 금병산

춘천은 산으로 둘러있다.

춘천이 낳은 소설가 김유정은 자신의 고향, 실레마을을 수필 「오월의 산골짜기」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나의 고향은 저 강원도 산골이다. 춘천읍에서 한 이십리 가량 산을 끼고 꼬불꼬불 돌아 들어가면 내닫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앞뒤 좌우에 굵직굵직한 산들이 빽 둘러섰고 그곳에 묻힌 아늑한 마을이다. 그 산에 묻힌 모양이 마치 옴팍한 떡시루 같다 하여 동명을 실레라 부른다." 한자로 표기하면 시루 증(甑) 자를 넣어 증리라 한다.

김유정의 표현대로 춘천의 모습도 그렇다. 그렇게 춘천을 둘러있는 산들의 모습이 그렇게 정겨울 수 없다. 거룩한 도성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품어주듯 우리 곁에 있는 산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았으면 한다. 그렇게 정겨운 모습으로 가까이 있어준 그 모습 그대로. 먼저 '금병산'을 소개한다.

금병산

1.**이름의 유래** : 춘천 시내에서 정남향으로 바라보이는 금병산(652M)은 가을이면 그 산기슭이 비단병풍을 둘러친 듯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2.**금병산의 개요** : 금병산은 춘천시에서 남쪽으로 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춘천을 에워싼 산들 중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대룡산(899m)에서 서남쪽으로 뻗어내린 능선이 수리봉(645m)을 솟구친 후 그 맥이 원창고개에서 잠시 가라앉혔다가 마지막으로 솟은 산이 금병산이다. 춘천시 신동면과 동내면 및 동산면에 걸쳐 있다.

3.**문학의 향기** : 금병산 서남쪽 산자락 끝에 김유정의 고향 신동면 증리 실레마을이 있다. 금병산 산자락 곳곳은 향토색 짙은 김유정 작품의 배경이기도 하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금병산에는 김유정의 작품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등산로(만무방길, 금따는 콩밭길, 산골나그네길, 동백꽃길, 봄봄길)가 있어 산을 찾는 이들에게 작가의 작품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안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작가 전상국의 장편 「유정의 사랑」 무대이기도 하다.

4.**등산로** : 금병의숙에서 소와리골 개천을 끼고 올라가노라면 저수지 밑에서 두 길로 갈린다. 계곡을 끼고 오르는 길과 바른쪽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다. 이 두 길 모두가 <만무방>길이다. 능선길은 '첫고개'와 '두고개' '세고개'로 넘어가는 길목이며 '봄 · 봄'과 '만무방'의 작품 무대이기도 하다. 계곡 안쪽이 '물골'인데 작품 '산골'과 '솥'의 작품 무대로 골짜기 위쪽으로 주인공 근식이의 집이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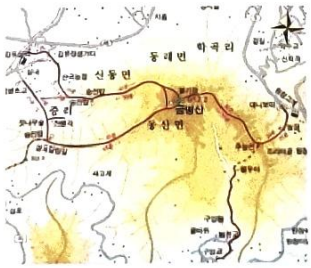
▲ 금병산 정상에서 바라본 춘천

<만무방> 길을 따라 약 1시간을 오르면 네 갈래 갈림길에 이르게 된다. 이 지점에서 김유정문학촌이 있는 산국농장과 금광터와 만무방의 노름굴이 있는 증4리를 잇는 길이 <금따는콩밭> 길이며 이곳에서 산 정상까지가 <산골나그네> 길이다. <산골나그네> 길은 가을이면 키를 넘는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산 정상에서 춘천 시내를 내려다보며 능선을 타고 내려가는 길이 <동백꽃길>이다. 능선길에는 봄이면 잎이 나오기 전 노란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동백꽃)가 드문드문 보인다.

금병산 산행은 김유정의 외가가 있었던 학곡리 원창고개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오르는 <봄 · 봄>길에서 시작할 수도 있다. 원창고개는 대룡산과 맞닿는 지점으로 중앙고속도로와 춘천에서 홍천으로 가는 56번 국도가 지나는 곳이다.

등산코스



1코스 (원창고개로부터 시작해도 좋다) 김유정역 ⇒ (김유정문학촌) ⇒ 금병의숙 ⇒ 소와리골 ⇒ 만무방길 ⇒ 능선 4거리 ⇒ 산골나그네길 ⇒ 금병산 정상 ⇒ 봄 · 봄길 ⇒ 원창고개(3시간 소요)

2코스 김유정역 ⇒ 김유정문학촌 ⇒ 산국농장 ⇒ 금따는 콩밭길 ⇒ 능선 4거리 ⇒ 산골나그네길 ⇒ 금병산 정상 ⇒ 동백꽃길 ⇒ 산국농장 ⇒ 김유정문학촌(2시간50분 소요)

3코스 김유정역 ⇒ 김유정문학촌 ⇒ 금병의숙 ⇒소와리골 끝집 ⇒ 만무방길 ⇒ 능선 5거리 ⇒ 금따는 콩밭 ⇒ 제2광장 ⇒ 동백꽃길 ⇒ 산국농장 ⇒ 김유정문학촌(3시간 소요)

풍 경

금병산은 숲의 산으로 종류대로 늘어선 울창한 숲은 대단한 볼거리이다. 더구나 능선이 구불구불 아름다워 녹음 속에 숲의 터널을 따라 산행하면 여름철엔 아주 시원하다. 그 이유는 능선양쪽으로 거의가 절벽이나 다름없는 급경사 산록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산을 등산했던 분들의 글 중에 "능선에 올라서면 조금은 완만한 능선길로 변하나 정상처럼 보였던 봉우리들이 하나하나 능선봉으로 바뀌는 과정이 한동안 되풀이 된다. 정상인줄 알고 올라가 보면 정상은 저만큼 뒤에 있곤 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올망졸망한 봉우리들을 오르내리는 잔재미가 금병산 산행의 으뜸가는 재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표현이 금병산을 잘 대변해 준다.

야생화





▲ 꽃이 산수유와 흡사한 생강나무

잎이 나오기 전 산수유와 흔동을 많이들 하는데, 수피도 다르지만 생강나무 꽃은 가지에 바짝 붙어서 핀다.

김유정은 소설 「동백꽃」에서 붉은 동백꽃과 구별이라도 하려는 듯이 '노란 동백꽃'이라 표현하고 있다. 당시 강원도의 동백꽃이 생강나무라는 것을 알 턱이 없었을 것인데도 '알싸한 그리고 향깃한 그 내음새'라고 꽃 냄새를 절묘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 각시붓꽃



▲ 붉은 병꽃나무

주변안내

김유정문학촌 : 작품의 무대가 기념관이 되는, 실레마을 김유정문학촌 뜰에 서면, 금병산 자락에 푹 안긴 마을이 한눈에 바라보인다. 멀리 금병산자락 아래 잣나무 숲 뒤쪽은 「동백꽃」의 배경이다. 맞은편 언덕에는 김유정이 움막을 짓고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친 야학(「안해」에 나옴) 터가 있다. 마을 가운데 잣나무 숲으로 들어서면 실존인물이었던 「봄 · 봄」의 봉필이 영감이 살았던 마름집이 있다. 김유정은 이 마을을 배경으로 12편의 소설을 썼다. 이곳 실레마을은 작가의 생가가 있고, 마을 전체가 작품의 무대가 되는 살아있는 문학기념관이다. 전국의 많은 문학기념관 중 유일하게 촌(村)자가 붙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부 고재민]

성전(중 · 소교회)꽃꽂이, 동양꽃꽂이

◆교육시간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중 · 소교회 성전 꽃꽂이반) 매주 토요일 오후 4시30분 (동양꽃꽂이반)
◆장 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강 사 : 양금환 교수(송플라워 춘천지회장)
◆내 용 : 중 · 소 교회를 위해 소박하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꽃꽂이 강습. 오리엔탈적인 신비스런 미를 강조하는 동양 꽃꽂이 강습으로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
◆수 강 료 : 등록비 1만원, 과정당 수강료 월 4만원 (※단 교재 및 재료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별도)
◆자격취득 :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급수별 자격증 취득 가능

천연화장품, 비누만들기 강좌

◆모집기간 : 7월 2일(월) - 8월 30일(월)
◆개강일시 : 8월 28일(화) 오후 2시
◆교육장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수 강 료 : 등록비 1만원, 수강료 월 4만원(※단 교재 및 재료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별도)
◆자격취득 : 소정의 과정을 필한 후 급수별 자격증 취득 가능 (※여선교회 사업으로 활용 가능)

교육인적자원부등록 사회교육단체,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원 인재한국 개원
※ 문 의 처 : 본원 사무실
(문교동 춘천 와이신협, 춘천기독교방송 3층)
☎ 033-241-8801, 8802
조순실 간사 011-9735-5191 김성호 원장 011-372-9100

자격증 반

노인요양관리지도사(노인 케어복지사) 2급, 1급
심리상담사 2급, 1급

◆모집기간 : 7월 2일(월) - 8월 30일(월)
◆개강일시 : 요양관리지도사(케어복지사) 2급 - 8월 27일(월) 오후6시
심리 상담사 2급 - 8월 30일(목) 오후6시
◆교육기간 : 개강 후 14주 동안 매주 1회 4시간(45분 수업)
◆교육장소 : 인재한국 평생교육원 세미나실
◆수 강 료 : 각 과정 당 35만원(※단 교재비, 실습비 및 자격증 수험료 5만원 별도) 1급 과정 : 2급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 소정의 과정(각 과정 당 35만원)을 마치고 1급 자격증 시험(수험료 5만원)에 합격한 이에게 1급 자격증 발급

포 · 토 · 에 · 세 · 이



그대의 강가 · 김춘배 作

여로(旅路) I

길을 나섰다

하루를 지나고
밤의 끝 길까지 따라온
응결된 슬픔을 풀어버리려
떠오르는 해를 뒤로하고
차도를 달려간다

햇살자락이 닿지 않은
봉의산 뒷자락을 지나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물을
나란히 하고
마음이 먼저 급한 듯 달려간다

강물 속으로 굴절되는
아름다운 소양고의 투영과
채 걷히지 않은 열은 안개와
아침의 맑은 햇살이 어우러진
아름다움의 결집 그 감동을
가슴으로 담으며...

가슴은 가슴에게 이야기 한다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처럼
아침이면 사라져 가는
농무(濃霧)들의 유희처럼
비우라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한다

시. 초록바람 한인순(춘천한길교회)

아름다운 세상

강릉대 아이들, 미국 명문대학원을 점령하다

– 조명석 저 김영사

김 종 호 목사(효자교회)



조명석 교수(강릉대학교 전자공학과)는 서울에서 출생하여 연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미국 플로리다대학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대전자 책임연구원으로 반도체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던 그는 1991년, 강릉대학교에 신설된 반도체공학과(현 전자공학과)의 유일한 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는 서울은 고사하고 수도권 대학도 못가 이곳까지 밀려왔다는 학생들의 자기 패배감, 웬만한 기업에는 이력서조차 내밀 기회도 없는 한국의 학벌 위주 세태를 극복하고 제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꿈을 심어주기 위해 '미국 명문대학원 진학'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내 주제에 미국 명문대학원 진학이 가당키나 하느냐'는 반응을 보이던 제자들, 토익 200점대에 학점 1.5를 밑돌던 학생들을 설득하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의 숨어있던 열정에 가능성의 불씨를 지펴 마침내 1996년 미국 워싱턴대학교 대학원에 첫 유학생을 배출한 이후 지금까지 30명이 넘는 졸업생을 미국 명문대학원에 합격시켰다. 강릉대 전자공학과는 특히 2005년에 10명, 2006년에 14명이 미국 유수의 대학원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룸으로써 언론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나는 교회가 다음세대를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군이 없는 다음세대는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곧잘 구라파나 미국교회를 이야기한다. 비어있는 교회 말이다. 모스크로 바뀐 교회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기독교 선교국가였던 영국이 주일 출석 기독교인의 숫자가 5%이내라고 한다.

지난번, 미연합감리교회를 방문했을 때에도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서 교육국의 관계자들이 많이 고심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지어 TV 광고까지도 한다.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우리 한국교회도 경제의 성장과 함께 세속문화를 즐기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세속을 헤쳐내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역꾼으로 세워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점점 원로원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강릉대 아이들"은 우리에게 대단한 충격과 도전을 준다.

나는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난후 도전 받고 강릉대로 가서 조명석 교수를 만나고 왔다. 한나절을 함께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한사람의 일꾼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일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조명석 교수. 크리스천인 그는 갈렙과 같은 개척자정신의 사람이었다. 오로지 제자교육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투자하였다. 방학 등 안에도 영어강좌를 운영하여 학생들이 계속 공부하도록 힘썼고, 교수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과 연구비를 거의가 학생들의 실험실습기자재구입비로 사용하였다. 또 제자들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장학금을 만들고, 취업과 진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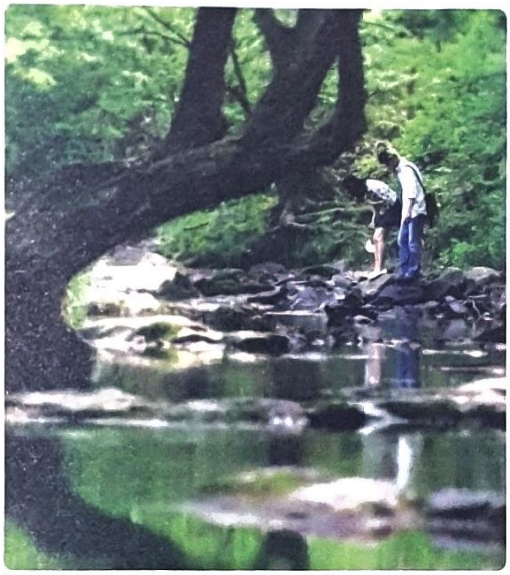
다음은 함께 방문한 우리교회 대학생들의 소감이다.

"전기전자전공인 저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강릉대는 대학원 중심의 교육이 아닌 학부생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자재를 쓰며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전공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공건물 안의 사용하지 않는 교실을 모두 열람실로 사용하며 개개인의 자습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 진 것을 보고 많이 부러웠습니다. 강원대에 들어와서 지방대라는 것으로 인해 별로 열정을 갖고 공부하지 않았고 딱히 비전을 갖지 못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누구에게나 길은 열려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강원대 05전기전자공학 김재홍

"저는 이번 강릉대 방문을 통하여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있던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함께 노력하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나도 저런 교수님들을 만났으면 내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의 비전이 없이 허황되게 시간을 보냈는데 늦었지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찾아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원대 03멀티미디어 유인혁

가 정

아름다운 만남, 사랑 그리고 결혼



크리스천 남과 여, 세상사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랑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소망하며 만남을 꿈꾼다. 내 짝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람인지, 그리고 나의 좋아하는 그녀(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하는지, 그리고 그녀(그)를 어떻게 지혜롭게 사랑하는지? 등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아름다운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흔기를 놓친 크리스천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 대형교회이든 소형교회이든 오늘날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 아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믿음이 좋은 형제가 없어서", "크리스천을 만나려고 하니 선택의 폭이 턱없이 좁아서" 라고 흔히들 이야기한다. 과연 그럴까? 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CCC 가정선교원장 금병달 목사는 1.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불행한 결혼 생활의 잘못된 영향 2. 정신적으로 부모를 떠나지 못한 경우 3. 사회적 ·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경우 4. 프로포즈에 대한 준비와 결단력 부족 5. 성 훈련이 되지 않은 경우 6. 이성에 대한 피해의식 7. 낮은 성적 주체성 8. 데이트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나 방법을 모르는 경우 9. 과거의 교제에서 정신적으로 벗어나지 못한 경우 10. 자신이나 타인의 생각 · 말이 을무가 된 경우 11. 배우자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가진 경우 등의 원인을 말하였다.

그렇다. 교회 내에서 이성교제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자연스레 크리스천 청년들도 폐쇄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이 많다. 이것은 어른들이 아름다운 이성교제의 방향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한 결과이다. 그렇기에 이를 개인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올바른 이성교제와 바른 결혼가치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연애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잘못 끼워진 관계의 시작은 결혼생활의 파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옛 태도를 버리지 않고 이름만 바꾼다고 뭔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만남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성경적 가치관과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더욱이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서 품성을 배워가는 훈련이 요청된다.

최근 들어서 한국 교계는 크리스천 미혼 남녀의 만남 행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정 사역단체에서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만날 수 있도록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여는가 하면 개교회도 서로 연합해 만남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솔로 탈출을 위해 이런 만남의 장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긍정적 자아상을 회복하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결혼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을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정말, 나의 반쪽을 만나고 싶은 크리스천 남과여에게 말하고 싶다.

1)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2) 은혜의 눈(콩깍지)으로 바라보라!
3) 나뿐만 아니라 내짝이 준비되도록 기도하라!
4) 상대와 눈높이를 맞춰라! [편집부]

예 향

"작은 교회의 가능성"

미국 워싱턴의 작은 교회 세이비어교회가 늘리 화제가 되고 있다. 150여명에 불과한 이 교회는 작지만 미국사회에 매우 큰 인지도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교회이다. 알콜중독자 치유프로그램, 무주택자 집지어주기 운동 등 모금을 통해 한해 1500만 달러(150억 원)를 지출하여 사회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단적으로 그것을 말해준다. 세이비어교회는 고든 코스비 목사에 의해 1947년에 시작되었는데, 코스비 목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고도의 영적 훈련을 받은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소그룹공동체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세이비어교회가 가능하다면 우리 한국과 춘천의 작은 교회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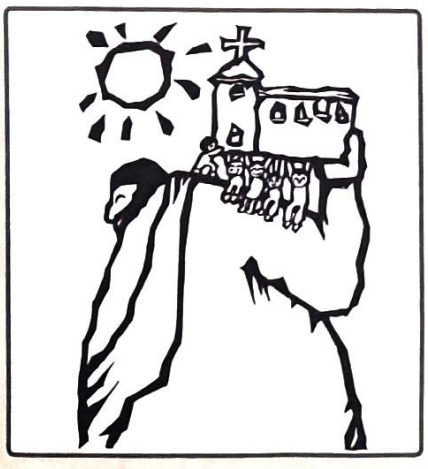
2007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한국 춘천대회

◆일시: 2007년 7월 24일~28일(4박5일)
◆장소: 춘천 강원대 캠퍼스(숙소는 강원대 1,000명; 한림대 54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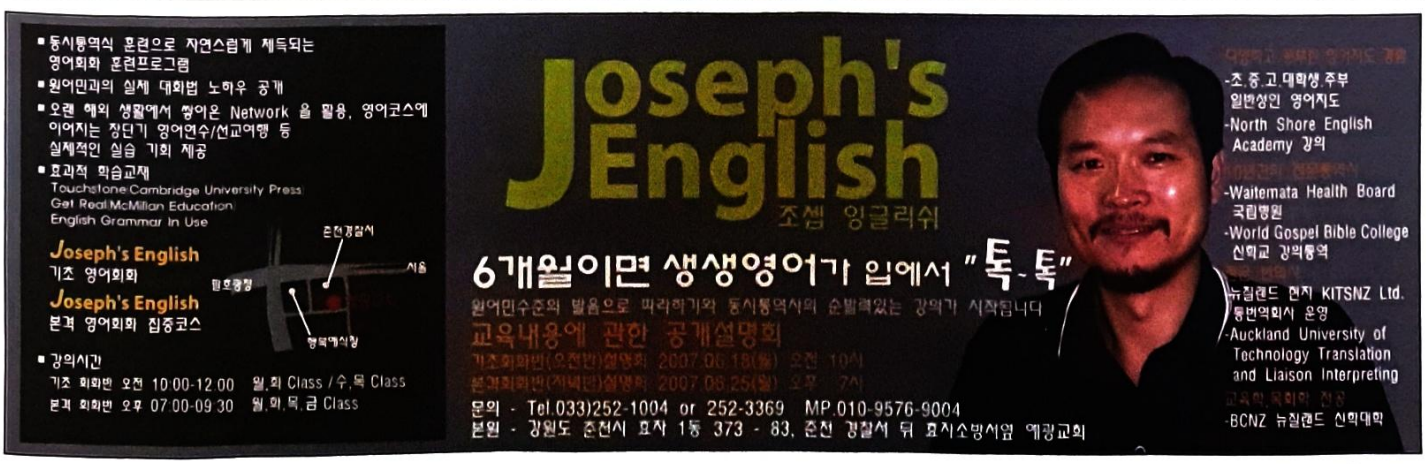
등록신청 선착순 2000명
등록안내(지료집과 복음과 복음과상황 6개월 구독권 제공)
※춘천지역 내에서 숙박을 하지않는 분에 한해 50% 할인 5만원
◆문의 : 춘천성시본부 (003)256-1260~1
010-3118-9355

성 시 만 평

이 관 형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



행사안내

▣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나눔 365

강원도 내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실 분들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랑을 실천하세요!!

♣ 후원방법

- 기금후원: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5천원, 1만원, 2만원이상 등)
- 사랑의저금통: 소형, 대형 저금통 모금으로 후원
- 각종물품후원: 의류, 문구류, 생활용품 등 각종 물품 후원

♣ 후원금 송금계좌

신한은행 100-018-623484(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 (033) 244-1391 http://www.1391.org

▣ 춘천YMCA ▣

★YMCA 평화 축구단 모집★

YMCA 평화 축구단은 축구 교육을 통한 신체 활동의 증가와 체력향상 및 비만아동을 위한 유산소운동, 개인주의를 벗어난 건전한 가치관 성립과 스포츠맨십 및 협동심을 배양합니다. 또한 기초 체력 및 운동체력의 기본이 되는 순발력, 지구력, 민첩성, 공간 지각력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까지 함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 상: 7세~저학년(남, 여) 선착순 20명
- 장 소: 후평 초등학교 (월 1회 인조 잔디구장 훈련)
- 시 간: 매주 토요일 오후02:00 ~ 03:30
- 준비물: 운동복, 축구화, 축구양말 및 정강이 보호대(유니폼은 모집 후 제작)
- 활동비: 50,000원(가입비 20,000원 포함)
- 문 의: (033) 255-1008(주중), 010-3013-5868(주말)

★여름특강 프로그램★

- 유아 · 초등기초수영, YMCA몸짱프로젝트-헬스, 점핑클레이, A+ 과학, 레프팅일일캠프
- 모집기간: 7월 6일까지 선착순모집
- 특강기간: 7월 30일(월)~8월 9일(목)
- 신청접수: 255-1005

▣ 월드비전 ▣

♣ 지역아동센터 여름방학교실 운영

여름방학을 맞아 교육과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수준별 학습지도, 영어특강, 사회체육 (요가 및 음악줄넘기), 연극, 사회성발달교육, 새소식반,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합니다.

- 일시: 7월 23일(월) ~ 8월 17일(금)
- 장소: 복지관 프로그램실
- 대상: 등록아동 및 저소득가정 아동 60명

♣ 사랑방 모임

"행복한 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 일시: 6월 12일 ~ 7월 17일(화)
- 장소: 복지관 1층 회의실
- 대상: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 30명
  - · 아버지교육: 7월 5일, 12일(매주 목) 오후7시~9시
  - · 어머니교육: 7월 3일(화) 오후7시~9시
  - · 조부모교육: 7월 3일(화) 오전10시~12시
  - · 가족나들이(삼겹살파티): 7월 17일(화) 오전10시~16시

♣ 2007 아동권리캠프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표현활동과 토론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찾고, 아동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참여활동을 합니다.

- 일시: 7월 31일(화) ~ 8월 2일(목)
- 장소: 엄마청소년수련원 너리굴문화마을(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 대상: 전국 월드비전 아동권리위원(춘천지역 아동권리위원회 20명)

♣ 청소년멘토링여름캠프

멘토와 멘티가 함께 지난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개인적인 활동 및 가정생활, 학교생활 등)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멘티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7월 27일(금) ~ 28일(토) 1박2일
- 장소: 홍천 이음림 펜션
- 대상: 멘티12명, 멘토12명 총24명
- 문의: (033)254-7244

나눔 365

아이들에게 사랑을… 아동학대예방캠페인





한국복지재단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홍창표)은 6월 16일 오후1시 횡성읍에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펼쳤다. 이 행사는 '신한은행강원본부와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 STOP!! 아동학대!!'라는 주제로, 신한은행 강원본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아동학대관련사진전, 인식조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배포, 서명운동 등의 내용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특별히 이 행사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관련 인식조사를 횡성군 내 아동(아동복지법에 의한 만18세 미만 아동)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나는 밤늦도록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있다'(아동학대의 유형 중 '방임'에 해당하는 질문)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39명, '아니다'가 31명으로 성인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아이들이 밤늦도록 집에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이 나타났다. 두 번째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성교육을 해준 적이 있다'(아동학대의 유형 중 '성학대 예방'에 관한 질문)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가 28명, '아니다'가 42명으로 아동에게 반드시 필요한 성교육이 가정 내에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

또 본 기관에서는 6월 23일 오후12시, 2시30분 남이섬 '세계책나라축제'에 참가하여 총2회 아동학대예방인형극「신통쥐팝쥐」를 공연하였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아동학대 상황발생시 대처법에 대해 습득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이달의 말씀

담후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

·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대회'**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강원대에서 열리는 본 대회에 청년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참여하여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통일의 기틀이 마련되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 **수련회를 통한 '어게인 1907'의 영적각성**
각 교회와 선교단체의 수련회를 통해 영적각성과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며, 이 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도록.

· **희망과 생명의 도시 춘천**
정치와 경제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으로 도시를 위해 희생 헌신하도록, 희망춘천건설을 위한 좋은 비전들이 은혜 속에 이뤄지며 거룩하고 복된 춘천으로 변화되도록.

· **2014 동계 올림픽의 개최**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최종결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지며, 지금까지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기관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위해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도록.

· **열방의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들 위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어 늘 성령충만하며 영육이 강건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독문화산책 — 영화이야기<1>

왕중왕 (King of kings)



예수님의 삶을 주제로 한 가장 오래된 영화는 1906년 프랑스의 알리스 기(Alice Guy)가 만든 <그리스도의 생애 Vie du christ, La> 라고 하는데, 최초의 여성감독 작품으로써 등장인물만 300명이 넘고 25개의 세트로 합성한 요즘으로 치면 블록버스터 영화였다.

이 영화는 세실 B 드밀 감독이 1927년 만든 흑백 무성영화 <왕 중 왕 (King of kings)>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한다. 드밀 감독은 "성경의 30페이지만으로도 훌륭한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명언으로 뛰어난 종교영화를 제작하였으며, 그 유명한 홍해의 기적을 다룬 <십계>를 만들기에 이른 것이다.





세실 B 드밀의 1927년 作

영화사상 <왕중왕>은 두 편(1927.1961년 作)이 제작되었다.







니콜라스 레이의 1961년 作

세계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죽음만큼 위대하며 사람들의 정신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없다. 샘솟아 오르는 열정과 영감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사명은 성경 속에 명백하지만 <왕중왕>은 그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렸으며 그러기에 인간 드라마의 가장 풍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제작자 세실 B. 드밀이 현대의 인류가 당면한 몰락위기에 처해 구할 길 없는 절망과 실의 속에서도 평화와 인간애를 되찾고자 다년의 준비 끝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루어낸 최고의 성경 영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활과 가르침을 생생한 감동과 진리로 보여줌으로써 전 세계에 커다란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흑백으로 교육방송(EBS)에서 방영되었는데 놀랍고 신비로운 빛의 연출이었다. 최근에 필름에 색을 입혀 재 상영되기도 한다.

이후 1961년에 니콜라스 레이가 동명의 영화를 현대적 장비로 제작하였는데, 예수의 일생을 다시 그대로 완벽하게 재현해낸 기독교의 대서사시였다. 2년이 넘는 제작 기간과 70,000여 명의 엑스트라, 360개소의 거대한 세트제작에서 보듯이 예수의 일생과 부활을 초대형 스케일로 그려낸 종교 스펙터클의 결정판인 명화이다. 이 영화가 시사되던 날 헐리우드의 영화 관계자들은 "신에게 바쳐진 장엄한 영상"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 두 영화를 비교하여 감상하면 신앙의 풍성함과 더불어 영상미의 색다른 경험이 될 것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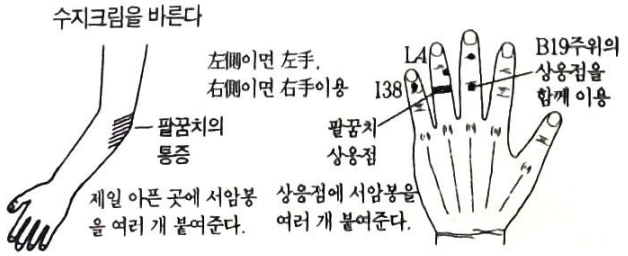
[편집부 김춘배]

수 지 침

▣ 앨보우 통증(팔꿈치 통증) ▣

테니스나 골프 등의 운동이나 팔을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면 팔꿈치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다.

이 앨보우 통증은 난치에 해당되므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우선 현재 실시하는 운동을 중지하거나 줄인다. 팔을 무리하게 쓰지 않으면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따라서 서암침봉이나 수지침으로 시술한다. 그리고 직접 아픈 위치에 서암봉을 붙이고 잔다. 매일 1~2회씩 반창고를 바꿔서 붙여준다.



<후원자를 찾습니다>

농협 301037-52-193771 조영춘
Y신협 04073-13-016959 조영춘
1구좌 5천원, 2구좌 1만원
(성시화를 위한 구독헌금에 동참합시다)

[성시화 후원자 명단]

갈릴리교회	김촌감리교회
광영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나눔성결교회	늘사랑교회
동신장로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순복음하니교회	사암중앙교회
서춘천교회	소양성결교회
소양제일성결교회	세인교회
새순성결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온누리장로교회	예광침례교회
예담장로교회	주친양교회
중앙장로교회	춘천일신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북부교회	춘천사랑의교회
춘천인디옥교회	춘천중앙감리교회
평화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한빛장로교회
춘천와이신협(심인섭)	천일현수막
해비타트(춘천지회)	국민일보춘천지사

김원기목은회연구소(김기태)

앤투어	디티피아	쏘인테리어
스타주유소	자연유치원	제시뉴욕
고석복	김준언	김진삼
김길홍	김현철	김영명
민병업	박동환	성기온
신성균	신종철	안미애
안정속	엄필남	오흥수
이국정	이용규	이원기
이원영	이판호	이학규
이병연	임희방	장기영
정찬복	조은제	최경용
최상호	최치광	한희현
황병찬	허순영	홍성운
홍순복		

춘천성시신문

편집위원장 : 최영조
편집 위원 : 조영춘 최상도
정재호 이영규
권기찬 고재만
김춘배 이관형
김미경

원고투고 및 광고 문의
200-080 춘천성시신문사
춘천시 운교동 174-3 와이신협3층
E-mail : hc1260@hanmail.net
대표전화 : 033)256-1260~1
FAX : 033)257-1260
010-7347-9004
010-3118-9355

중앙광고기획
DTP 디티피아
- 인 쇄 : 명함, 스티커, 전단, 포스터, 카다로그, 각종봉투, 시식, 달력
- 판 촉 : 캘사용 단체복, 우니폼, 만년T, 각종리본류, 캘사기념품(타올/우산등)
- 현수막 : 각종천수막, 실사현수막

"우리만이 내의 길이오 진리오 생이 있나니"

최 상 철 집사 (제일장로교회)
Tel : 033.263.5152
Fax : 033.242.5121
강원도 춘천시 효자3동 607-2
E-mail: chsch1784@yahoo.co.kr

교회현수막만 합니다
원단가 인하로 대폭 내렸습니다
예수님 향기
꼭 필요하시면 그냥 해 가세요 (개시미교회)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ww.chunill.com
1001design@hanmail.net
천일디자인 T. 255-5722 F. 256-5722
춘천시 효자1동 660-8 (동성교회 앞)
전 천 일 장로

알 림

칼 럼



아버지와 베구두

이 주 호 목사
춘천기독교연합회 총무(소양제일교회)

오래전의 일이지만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 아버지께서 베구두를 사주셨습니다. 운동회를 그때는 베구두라 불렀지요. 그날 밤은 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베구두로 말미암은 설레임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이들과 수리도랑에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큰 농수로를 그때 우리들은 수리도랑이라 불렀습니다. 수리도랑 옆 논두렁 마른 풀 위에 옷을 놓고 그 속에 베구두를 고이 싸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베어다가 진흙을 바르고 도랑에 가로놓인 시멘트 수로위에 올라가 다이빙을 하기도 하고, 물치기도 하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런데 같이 놀던 형이 갑자기 "불독온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깁히면 큰일 납니다. 도망을 쳐야 합니다. 불독은 수로를 관리하는 아저씨를 말하는 것인데 큰 세퍼드를 끌고 다니면서 인상이 하도 험악해서 우리가 붙인 별명입니다. 만약 불독아저씨에게 붙잡히면 혼이 날 뿐 아니라 옷을 빼앗깁니다. 팬티만 입고 논두렁을 몇 바퀴 돌아야 하는 법도 빕습니다. 옴며 불며 에원을 해도 창피를 무릅쓰고 돕지 않으면 놓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독이 나타나면 옷을 벗은 채로 죽기 살기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저는 옷을 가슴에 품고 달렸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겼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옷을 입기 위해 가슴에 품었던 옷을 내려 놓고 보니 베구두 한 짝이 어디론지 가고 없는 것입니다. 불독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베구두를 찾으려 도망 왔던 길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뒤져도 없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다 집으로 갔으나 저 혼자 집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수리도랑 끝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베구두 한 짝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초저녁 하늘에 별이 돋아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아스팔트 위는 아직도 열기가 있었고 가끔 차들이 지날 때마다 일어나는 바람은 무척이나 시원했습니다. 불독아저씨가 원망스러웠고, 엄마의 매서운 음성이 벌써 귓전을 때립니다. 사방은 완전히 어두움에 싸였습니다. 그리고는 내키지 않게 어느 듯 집으로 향하는 긴 골목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시커먼 큰 물체가 앞을 가로 막아섰습니다. "주호 맞나?"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아버지는 미리 속인 나를 한참 쳐다보시더니 돌아서서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업히라"…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리며 부끄럽도 모른 체 소리 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머스마 자슥이 울기는, 괜찮다, 득 그치" 밤 개구리 소리가 그쳐서야 유난히 크게 들렸고 아버지의 등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 때 느꼈던 그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도 제게는 더 없이 소중한 힘이 됩니다.

여름이 막 물려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체험하는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알려드려요

◆어린이전도협회

1) 3일클럽 어린이 전도자 훈련
- 일시: 7월 30일(월) ~ 8월 3일(금) 4박5일속바훈련
  훈련 후 8월중 1름법 이상 전도
- 장소: 본회 지정훈련장 모집: 30명(선착순)
- 대상: 아동부 지도자, 교사, 예비교사(중2이상 훈련가능)
- 등록금: 6월30일까지 신청자 무료
  7월 7일까지 신청 30,000원
  7월14일까지 신청 60,000원
  마감일 이후 등록금 1인 20만원

2) 학교 순회 전도
-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1:30~4:00
- ※교대부속7/5 근화7/12 신남7/19

3) TCE 전도자대학
- 일시: 8월 20일(월) ~ 8월 25일(토)
  낮반9:00~오후1:00 저녁반6:30~10:00
- 모집: 반별 20명 장소: 본회 사무실
- 등록금: 10만원
- 문의: 253-1413, 242-8291 [http://cafe.daum.net/cefchi/]

◆예스컴(구 예수사람운동)

1) 흘리워커즈 수련회(예스컴스탭수련회)
- 일시: 7월 2일(월) ~ 4일(수)
- 장소: 사암성결교회 구성전(한꼬리)

2) 기독교대한성결교 서울중앙지방회 청소년부연합수련회 협력
- 일시: 7월 26일(화)~ 28일(목)
- 장소: 가평 성락성결교회

3) 2007년 예스컴썸머캠프
- 일시: 1차 8월 2일~4일 / 2차 8월 6일~8일
- 장소: 충신수양관
- 주제: 위대한 인생(창6~9장)
- 강사: 박상철 목사
- 등록 및 문의: 241-5400
- [club.cyworld.com/yescomecamp]
- 한승연 016-369-6994 신유정 010-5422-2321

◆IVF

1) 새벗 수련회
- 일시: 7월 1일(일) ~ 7일(토) 대상:1학년
- 장소: 가평 승동기도원

2) 기초공동체
- 일시: 7월 1일(일) ~ 7일(토) 대상:2학년 이상
- 장소: 가평 승동기도원 문의: 252-5200

◆한국대학생선교회(C.C.C.)

1) CM 2007 선교대회
- 일시: 7월 2일(월) ~ 6일(금) 장소: 부산 벡스코

2) 부산 도시선교
- 일시: 7월 6일(금) ~ 9일(월)

3) 동아시아 단기선교
- 일시: 7월 11일(수) ~ 25일(수)

4) 아가페 여름진료
- 일시: 7월 17일(화) ~ 25일(수) 장소: 포천
- 문의: 254-5776
- ※ CCC어린이집 교사모집 1인
- 문의: 010-9533-5776

◆예수전도단

1) 춘천 회복을 위한 화요모임
-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6:30 장소: 춘천동부교회 소예배실
- 대상: 연령, 교단을 초월한 모든 그리스도인
- 문의: 252-1128 [http://town.cyworld.com/ccywam]

2) OPEN 선교대회
- 일시: 2007년 8월 15일(수)~ 18일(토) 3박4일
- 인원: 선착순 2,000명
- 장소: 힌대 성우 리조트(강원도 둔내)
- 강사: 로렌 커닝햄, 존 도우슨, 데이빗 헤밀턴, 홍성건, 문희곤 등
- 회비: 1인 12만원 등록방법: 02)333-8122~3

◆JDM

1) 제자행전
- 일시: 7월 2일(월) ~ 7일(토)
- 장소: 국내 유적지와 기업체 바둡관

2) 태국 선교훈련
- 일시: 7월 3일(화) ~ 13일(금)
- 장소: 태국 방콕의 캠퍼스를 중심으로

3) 전국 청소년 수련회
- 일시: 7월 24일(화) ~ 27일(금)
- 장소: JDM 훈련센터(033-243-6701)

4) 기독직장인 수련회
- 일시: 7월 30일(월) ~ 8월 3일(금)
- 장소: JDM 훈련센터(033-243-6701)
- 문의: 252-3192 / 010-9054-3192

◆태권도선교 시범단 훈련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9시~11시
-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문의: 263-6022, 011-9791-6055

◆몸소리워십댄싱선교단 훈련

-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8시~9시
- 장소: 경원대태권도장
- 문의: 263-6022, 017-374-2440

◆GBT성경번역선교회

1) 비전기도회
- 일시: 7월 2일(월) 오후7시
- 장소: 서울삼광교회
- 발씀: 김의정선교사 (동남아시아 E족)

2) 춘천지부 비전기도회
- 일시: 7월 9일(월) 오후7시, 7일 23일(월) 오후7시
- 장소: 예담교회
- 인도: 이지혜간사
- 문의: GBT 춘천지부 이지혜 간사 017-383-2416
  [033@gbt.or.kr]

◆구봉산 산기도회

-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11시, 금요일 오후10시
- 장소: 구봉산 기도공원(만천리 공무원 연수원 뒷산)
- 문의: 256-7579 018-315-7579
  지팡이선교회(신광교회 유근일목사)

◆UBMK(올란바트르 선교사 자녀학교)

현신한 교사 및 후원자를 찾습니다.
문의: 이영규 목사 019-9224-0690, 243-0691

◆춘천기독교연합회 신학세미나

- 일시 : 7월 2일(월) 오후 5시 ~ 9시
- 장소 : 소양성결교회
- 주제 : "예언자 영성"
- 강사 : 차준희 교수
- 문의 : 256-1260~1

◆2007 성서한국 영역별 통일대회

- 일시: 2007년 7월 24일(화)~28일(토)
- 장소: 춘천 강원대 캠퍼스
- 주최: 성서한국
- 공동주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 문의: 033)256-1260~1

"미라클 영어회화 훈련소('인트로단계' 7기모집)"

1. 개강일사: 2007년 8월 20일(월) 오후 6시 40분(시간엄수)
2. 기 간: 8월 20일(월)~ 9월 14일(금)(매주월화,목금 6:40-10:10PM) 1일 3시간30분씩 1개월(16일간총56시간학습및훈련.
3. 훈련단계및 교재: 인트로단계 7기, 교재:Interchange(Intro)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
4. 장 소: '꿈이있는교회 (교통편카풀 22번, 28번버스)
5. 본훈련소는: ①초5,6년중 · 고등학생,대학생, 일반등누구나 참여만 하면 영어컴플렉스 완전해방!꿈과 비전을 심어준다.
   ②영어회화를 공부하다가 더 이상 실력이 늘지 않거나, 어려워서 포기하신 분의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주는 곳. 강사보다 훈련생이 더 말을 많이 하게 한다.
   ③영어회화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 회단기간에 (영어)회화를 정복하고 싶으신 분.
   ④출국이 임박한 분, 선교지로 파송될 분, 해외어학연수, 유학가기 전에 미리 반드시 거쳐야 할 곳.
   ⑤경험자의 입소문을 듣고 타 지역서울, 부산, 성남 평택 등에서도 방학 때 춘천에 원정 와서 훈련 받는 곳.
   ⑥영어핵심을 통해서 훈련시키므로 회화뿐만 아니라 영어공부 전반(리스닝,발음,문법,회론독해)에 대해 원뿌리 핵심을 습득할수 있기 때문에 예비중학생이나 영어에 자신감을 중고생 자녀에게도 매우 좋습니다.
6. 훈련등록마감: 7월 25일(수)까지 선착순 마감조기마감을 주의 하세요. (☎264-0691,011-386-6239,010-8250-0688
7. 공개설명회 및 체험시간: 1차7월 7일(토) 오후5시~6시30분) / 2차7월 14일(토) 오후5시~6시30분)

※ 훈련생 자격 : 기독교 신앙인 / 본 훈련 수료자의 추천을 받은 자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반드시 2차의 공개설명회 중 1회를 참석한 자 ※ 훈련등록을 원한 자로서 첫시간(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참석해 이탈 상기사항이 이행될 때에는 훈련생 자격을 부득불 취소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꿈이 있는 선교 언어 훈련원 -

"서울 에서 매일 춘천 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춘천 에 이런 곳이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영어회화 기적이 일어났다!" "미국 현지 에서 쓰는 영어가 단 1개월만에 입에 붙다!"
"정말 꽉 짜여있고 정확 한 부담이다. 이제 춘천 스탭자들이 입증을 하고 있다"
"춘천시민으로 참된 국제실력의 참석자들이 되는 기회 이야 두력 했습니다!"
"주력성을 주제로 영어를 통해 하는 주제 에서 생활에게도 더 없이 좋은 기회 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이해"가 아닌, 목적 적이고 확기적인 미래 중심 방법으로 "입증 적인 훈련"을 목표로 들른 이고 피하도 합니다.

미라클영어회화수기

"머리를 영어는 영어의 핵과 핵을 이해는 하고의 훈련경험입니다. 다이4301 되도록 들지못했던 영어에 맺힌 한을이제야 풀게 됐습니다 이 과정은 영어의구조의 핵심을 그기초부터 확실하게 잡아줬으며 영어그 자체에 대한 전반적이고도 핵심적인 이해를 갖게 합니다.또한 강사의 탁월한 설명문법 전체 및 입장적인교수로 훈련자에게 영어훈련을 향한 큰자극과 도전을 생성됨이 갖게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미래를 계획은 훈련생으로 하여금 영어에 대한확실한 자신감과자신의 말으로 어떻게 영어를 습득해야할지 그 방법을 정확히계시해 줍니다. 영어에 한 맺힌분들에게이 과정을 큰 기쁜으로추천합니다." -세인고회 김근수목사-

"영어를 전공하고있고 또 영상매공부를 년째도 잘인 되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영어의 핵심이 한눈에 들어와요"-한림대 영문과재학생-

"전화상(해서 내말을 못 알아듣던 "제근데 미국대학원졸에자" 기 본영어일이들어요" -미 주립대 대학원 합격자-

"영치가 들려요" "길 가는데 영어가 튀어나와요" "학교 영어가 너무쉬워요. 친구들이 나 영어어디서 배웠니고 물어봐요" 정색한 하는 편다고 목서그 상 실색한 분도 있고 그어떻게 느꼈지만 문법이 너무나 쉽게정리 되구 습득이 되요 대상 단어를 귀속해 목해를 해서 자신이 없었는데 이번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목해를 하고한 수도도 3배 이상 향상했어요 별도로 집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복습이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습득이 되니까 너무좋아요" "상남에서매일통학하시간되지고 다니면서 훈련한데 하루하루가 너무재밌고 의미 있어서 3시간반이언제 지나갔는지 몰랐요" "2단계까지 한 회고 개인시장상 하루에 간단해 내무아니까지 시급히국에서 오면 강의를 듣고있어요" "그동안 영어에 한이도 못 상단 미국시장을 부딪혀 볼 희망이 생겨서 너무좋았" "수준 맞는한책만 영어강사 능력은 정책만 문법과 독해가 선행해야한다는 말이 실감이 되요 문법과 독해 그리고 발음이 너무나 정확해게 습득이 되요.정말 믿기어려울 정도예요" "영어면 자격시험에 3학년 고입과제를 문으로 내 문제에 영어만 쓰다고 선언했는데 이런영어의 습게을 일게됐다 하니모도 다일해주셔서고 일정을 다하시는모습에 감사드린다" - 초년생서 50대 주부까지 -

* 본 훈련문화은 20명 (기초부터 오랫동안) * 기 본 단계 : 1개월 정도 영어회화기초를 완성하고싶어서 대한 시간 강의에 대한 강좌 수업
기 본 조례 → 5시30분1단계 → 5시30분2단계 교재 : newinterchange - 캠브리지대학출판사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성결교회 100주년 기념



소안교회(담임:이원호목사) 성도들은 지난 5월 27일 오후6시 서울 광림교회(박주삼 목사) 주경기장에서 9만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성결교회 10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였다. 1부 경배와 마당 찬양과 기도, 2부 드림의 마당 예배, 3부 비전의 마당 비전 선포 순서로 이어진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적 성결인으로의 도약을 다짐하고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섬김과 헌신을 다짐하였다.

■따뜻한 사랑과 문화 체험



우리손복음교회(담임:김재명목사)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제주도 국제사회복지회 사회복지법인 선도원 장애인 31명을 초청하여 6월 4일부터 8일 4박5일 동안 촌천 관광 및 문화체험을 가졌다. 강원도를 처음 찾은 장애인들은 우리손복음교회 성도들과 대아관광 이원섭집사(석사교회)의 도움으로 김유정문학관, 유인석기념관, 춘천 대명스키장, 소양강댐, 의암댐, 춘천댐, 에니메이션박물관, 구곡폭포, 남이섬 등을 관광하였으며, 호산부인과에서 무료검진도 받았다.

■가나안 농군학교 방문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이원호목사) 임원일동은 6월 9일 원주 신림면 소재 가나안농군학교 수양관 장로기도회에 참석하여 예배와 합심기도 시간을 가졌다. 이원호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가나안농군학교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며 21세기 세계 선교에 크게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사랑의 집짓기 후원금 전달



강원도개발공사(사장:박세훈)는 6월 13일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소망의 마을에서 한국 헤비타트춘천지회(이사장:김창수)에 '사랑의 집짓기' 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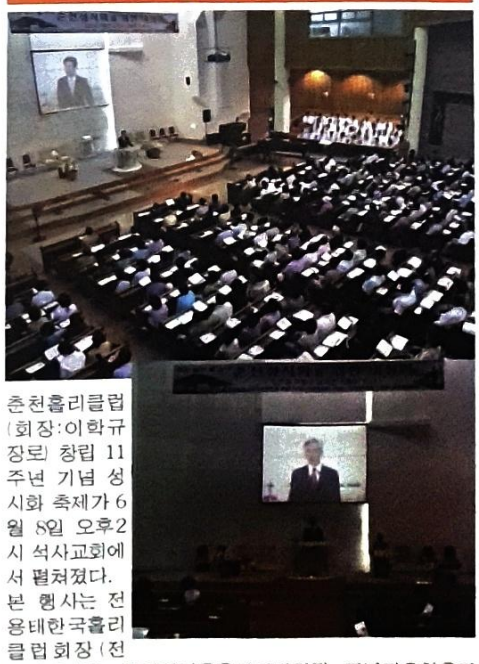
춘천복음화와 경찰가족을 위한 부흥성회





춘천경찰서교경협의회(회장:원종극목사)는 춘천시의 부흥과 춘천경찰서(서장:정명균) 경찰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6월 3일부터 6일까지 오후7시 평화교회에서 '연합부흥성회'를 열었다. 매해마다 열리는 교경연합부흥성회에서는 1년간 약750여명을 전도한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집사가 "하나님!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간증으로 전도의 불을 지폈다. 그리고 CBS 파워특강 설교로 잘 알려진 김문훈목사(부산 포도원교회)가 "원판과 본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문제와 해결"이란 제목으로 3일 동안 재미있고 열정적인 설교로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5일 낮에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도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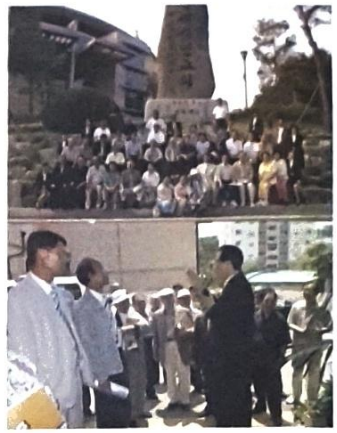
성시화 축제



춘천흘리클럽(회장:이학규장로) 창립 11주년 기념 성시화 축제가 6월 8일 오후2시 석사교회에서 펼쳐졌다. 본 행사는 전용태한국흘리클럽회장(전 춘천지검장), 양인평서울흘리클럽회장, 조남진춘천흘리클럽명예회장과 전국 24개 흘리클럽 대표와 임원들, 춘천의 복회자와 평신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감사예배를 시작으로 하여 성시포럼, 흘리클럽 수련회, 기념 대성회로 진행됐다. 성시포럼에는 평화한국 상임대표 허문영박사(통일연구원 평화기획연구실장)가 "성시화 운동과 통일"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기념성회에서는 김학중목사(새안산교회)가 "청찬"을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였다. 또 강원도와 2014 동계올림픽 유치, 국가와 민족의 평화통일, 춘천성시화와 흘리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부 김미경]

■연세중앙교회와 은평천사원 방문



춘천지역 장로연합회(회장:이무식장로)는 6월 11일 장애인 시설 서울 은평천사원을 방문하여 원생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연세중앙교회(담임:윤석전목사)의 에루살렘성전을 비롯하여 교회 내외를 견학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다.

■지역 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창조도시 시민포럼(상임대표:박의범교수)은 6월 22일(금) 오전7시 한림대 고령사회교육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춘천 및 강원도의 교통망 발전방안"을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강원도개발공사 박세훈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엄광열원장(강원무역창업연구원장)이 "2009년 경춘선 복선전철 준공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규호국장(춘천시건설도시국장)은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을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흘리클럽 정기총회



춘천흘리클럽은 6월 25일 오후5시30분 석사교회에서 제1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임원선출과 회칙을 개정하고 2007년 하반기 운영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신임 회장으로 이학규장로가 재 선출되었다.

■웃음치료



춘천경찰서 직장선교회(회장:지상근)는 6월 26일 오전11시 월드비전 춘천복지관 3층 강당에서 월드비전노인복지대학 70여명 어르신들과 함께 웃음치료를 통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지상근회장은 복음과 함께 웃음치료특강을 통한 마음의 치유와 회복, 행복을 되찾게 하는 웃음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도시를 향한 꿈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도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
생명수가 폭포수같이 흐르는 도시
나눔과 섬김이 넘치는 예수도시

춘천 성시화를 향한
우리들의 꿈과 소망이
이뤄지는 날 기대하며...

자스민의 향처럼 이웃과 더불어
늘 향긋함을 풍기는 아름다운 동역과
자스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스민의 편안하고
맛나는 공간으로 초대합니다.

◆외식(가족, 각종모임, 단체)
코스정식요리전문(15,000~90,000원)
◆돌잔치 및 생신축하연
(3층의 넓은 연회석 준비)
◆중식뷔페의 즐거움과 다양함을 제공
◆자스민의 모든 음식이 단체 및 개인포장
(도시락) 가능
◆자스민의 식사상품권을 고마운 분들께
선물하세요.

♣ 영업시간 AM 11:00 ~ PM 22:00
♣ 예약전화 033)241-5453, 244-5453
♣ 홈페이지 www.zasmine.com

자스민의 로고는 쌍희(囍)자로써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손님을 모시면 손님 또한 즐거워하시는 서로서로 즐겁고 기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춘천성시화운동본부